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다 찬양하여라 (찬21/새21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응진 집사 2부/이길수 장로 3부/김병주 장로 4부/김유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님은 내 기쁨 (작곡 John Carter)
- 영상광고 Media Announc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9:18-26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4:53-72
- 말씀 Message 1, 2, 3부.....Rev. Paul S. Jeong 정승락 목사

인생의 끝에서 예수를 만나다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42) 세 재판정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시선, 오 놀라운 구세주(찬446/새391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Rev. Paul S. Jeong 정승락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생색 Show Off



정승락 목사 / Rev. Paul S. Jeong

제가 2023년이 되면서 결단한 제 삶의 적용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자' 였습니다. 그 실천으로 월요일은 집 안 청소하자고 작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요일은 목회자의 휴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밀린 일도 해야 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쓸고 닦고, 방과 화장실을 구석구석 청소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게다가 마당 청소까지 하고 나면 어느덧 아이들이 학교할 시간이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나의 소중한 월요일은 거의 끝이 납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데 정말 완벽하게 해도 크게 바뀐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평상시 아내가 청소를 참 깔끔하게 했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오래간만에 집 안 청소를 한 티를 좀 내고 생색을 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큐티를 하는데,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임금이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히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칭찬을 들은 의인들의 대답은 본인들은 언제 그렇게 했냐며 오히려 의아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삶의 한 부분처럼 너무 당연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본인이 언제 신경 써서 남을 도왔는지 기억조차 못 한 것입니다. 마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행했기에 '생색'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악인들은 왕의 질책에 오히려 언제 안 했냐며 본인들의 행동을 따집니다. 본인들이 한 선행을 기억해 내며 '생색'을 냅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쉽게 시험 드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알아주지 못하니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주릴 때 생명의 떡을 주셨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으며, 헐벗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고, 아픈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죄의 노예 되어 사슬에 묶여 옥에 갇힌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한 번도 우리에게 생색을 내시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25:40] 조그만 일로 생색내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해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One of the new life resolutions I decided as 2023 began was "Let's love, not only with our words, but with our actions." In keeping with that, I decided to clean the house on Mondays. As you know, Mondays are a pastor's day off. So, there are matters that have fallen behind and on this day they need attention. But I also would like to use that time to rest and recover. Time flew by as I swept and mopped, cleaning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rooms and bathrooms. And just as I finished cleaning the yard, it was time for the children to come home from school. And just like that, my precious Monday is almost over.

What I realized while cleaning is that no matter how much you clean, it doesn't show. Even if you clean it to perfection, it doesn't feel like much has changed. I now appreciate how my wife has been keeping the house so clean! I wanted to show off a bit of my cleaning skills and get some credit for my effort, but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During a QT session, this part of God's Word really touched my heart. In Matthew 25, a king says,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I needed clothes and you clothed me, I was sick and you looked after me." But when "righteous" (virtuous) people hear this compliment, they wonder what it was that they had done and act all surprised. For them, they see loving and serving their neighbor as a normal routine part of life. They may not even remember when they helped others. It's like breathing in and out without a thought. So there's no need to show off or take any credit for it. By contrast, the wicked are rebuked by the king and questioned when they did not ever do these things. They try to cite any good deed to show off and draw attention to themselves. Looking at the wicked, at those times when we are tempted and tested, we can see our own selves in them. In the midst of our various times of serving, we often find ourselves going through a time of testing where no one seems to notice or acknowledge our efforts.

However, our Lord Jesus gave us the bread of life when we were hungry. He gave us the living water that quenches all thirst. He clothed us with the garments of Christ when we were naked. He healed us when we were sick. And He saved us from the bondage to sin; when we were bound in chains and imprisoned. He has done this without ever demanding us to repay Him or brag on Him. Today, once again, I ascribe my heart to this passage. "The King will reply, 'Truly I tell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Matthew 25:40) Let us not live a life, taking all the credit, for small deeds done just for show. But I hope we live serving each individual soul. May we live as to serve the Lord.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정승락 목사

인생의 끝에서 예수를 만나다

마태복음 9:18-26

1.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녀와 여인처럼 '인생의 끝'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민 생활, 결혼생활, 자녀를 키우며 등 삶 가운데 경험한 "인생의 끝"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막 5:21-43; 눅 8:40-56)에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특히 마태가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소녀(관리의 딸)와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또한 이 소녀와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 ① _____
 - ② _____

4.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접촉/만지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5.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왜 '딸'이라고 부르셨나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딸/아들로 불러 주시며 내 손을 잡고 일으켜/살려 주신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적용하기



새가족팀 - 바나바 사역

베델에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오랜 시간 유아부를 섬기다가 새가족팀 바나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역이지만 바나바로서의 섬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진행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낮선 교회를 찾아오시는 새가족을 사랑으로, 한 가정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과 사정에 맞게 맞춤 섬김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작은 믿음이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며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을 위해 Always be there!

이영재 권사

주일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새가족팀에서 바나바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베델의 바나바들은 새가족들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끌어 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부모나 형제, 오랜 친구처럼 새가족들을 섬기시는 모습에 매번 감동하고 은혜받으면서 나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나바로 만난 한 가정이 쉼가족으로 관계가 이어지면서 매주 셀모임을 통해 진정한 가족으로서 사랑과 나눔의 축복을 누리고 있

습니다. 때때로 교회 마당에서 마주치는 새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기도의 자리, 봉사의 현장, 말씀 양육까지 베델의 일꾼으로 성장하시는 새가족들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를 본으로 삼고 귀한 사명으로 새가족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연희 권사



새가족 사역팀

1. 새가족팀 사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베델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정성을 다해 맞이하며 잘 정착하시도록 돕는 사역이며 주차부, 영접부, 바나바부, 만찬부, 장식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새가족이 교회에 들어서시는 순간 새가족팀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먼저 깜빡이를 켜고 새가족임을 알려주시는 분들을 주차부에서 새가족 전용 주차 공간으로 안내하고 영접부에서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이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본당 안의 안내 부스까지 안내해 드리면 등록을 도와드리고 맞춤 바나바와 연결해 드려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들은 전담 바나바가 별도의 체크인 부스에서 등록을 도와주고 학년별 예배당까지 안내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새가족 영접실에서 교회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교회 역사와 예배, 사역팀 등을 소개해

드린 후 바나바들이 교회 곳곳을 보여드리며 교회 투어도 진행합니다. 이후 친교의 장인 블루텐트에서 교제를 나누고 이후로도 한 달가량 동안 바나바들이 헌신적으로 새가족들의 정착(교회 적응, 학교, 사업장 등)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새가족 환영회는 언제, 어떻게 열리나요?

새가족 등록 후 4주간의 기본 교육을 마치면 교적 번호를 부여받고 베델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어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받게 됩니다. 보통 1년에 네 번의 행사(올해는 6, 9, 12월 세 번)가 열리는데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는 만찬부와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식부가 섬겨주십니다.

4. 감사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새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특별히 미

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봉사자들 간에 서로 아껴주고 섬기는 모습 또한 참 아름답습니다.

5. 사역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새가족들이 새가족팀을 통해 베델교회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6. 성도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뵙는 모르는 분들께도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 반갑게 인사함으로 교회는 세상과 달리 따뜻한 곳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격려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베델 교인들 속에서 새가족들이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 문의 : 김문경 장로 (949)923-1325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중국어권 미국인을 만나 결혼 후 함께 미국 교회를 다니며 정착하지 못하던 중에 영적으로 바로 서자는 마음으로 인터넷 검색 중 김한요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 바로 찾아와서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4주 받았습니다. 기대와 달리 영어 셀 모임이 인원 초과로 자리가 없다는 소식에 실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곧 팬데믹이 되면서 셀모임의 바램

와 동질감을 느끼며 편히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셀원들 대부분이 초등부 교사와 팀장으로 섬기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체크인 하는 일이라도 도와야 겠다는 생각으로 발을 들였던 게 이제는 함께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초등부 모임에서는 셀모임을, 셀모임에서는 초등부 교사 미팅을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격주로 모

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던 중 김인규 셀목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줌 영상으로 첫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배우자가 한인이 아닌 가정이 둘이나

이 셀에서는 설교말씀을 나누고, 아직 신앙이 부족한 남편을 모임으로 자주 불러 맛난 음식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벌써 3년이 되어가는 요즘도 만나면 늘 웃음도 끊이지 않고 기도 제목도 계속 쌓여만 갑니다. 몇주전에는 영어가 완벽하신 공동체 목사님께서 찾아주셔서 저희 셀에 필요한 주일설교 통역 등 많은 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발 앞에 라는 셀 이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 앞에 내가 늘 서 있다'는 마음으로 지으셨다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불만과 할 말이 사라지고 은혜만이 남습니다. 이 이름처럼 셀원들 모두가 받은 은혜가 커서 서로를 더 섬기고 위로해주고 기도의 파트너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성장해 가기를 기도 합니다.

이원경(Sami) 집사

베델 선교-우간다

함께 가요! 우간다 선교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는 현재 베델교회에서 협력 선교로 돕고 있는 곳입니다. 팬데믹 전에 비전 선교 여행을 통해 그 나라를 품고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의찮은 상황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단기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간다 선교 사역은 다양합니다. 장애우를 위한 주거지를 지어주는 축복의 집 건축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집 사역은 집이 없어 고통받는 장애우를 위해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이 집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음이 흘러가는 예배 처소가 되는 아주 특별한 가정교회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가족과 지역에서 버림받거나 저주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서 놀라운 가족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무슬림 가정의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축복의 집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사랑의 휠체어 지원과 성경 보급 사역이 있습니다.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지역에 장애우를 위해 현장 봉사를 나가며, 이들에게 필요한 이동 도구를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입니다. 매달 현장 봉사로 진행되는데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장애우와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너무 귀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휠체어 현장 봉사 사역은 고립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우에게 큰 소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 베델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현재 팀원을 모집 중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조건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간다 나라를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종곤 집사

- 일정: 6월 12일(월)-21일(수)
- 현지 선교사: 박민수, 이영순
- 문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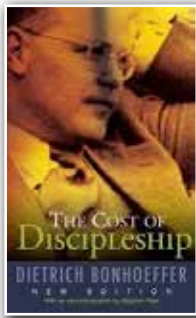
말씀 AGAIN+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되는 책 제목 혹은 신앙 위인들의 인용구, 찬양을 정리하여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Again" 나눕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 '제자도의 대가' (2022년 6월 19일 설교, 말로 하는 사랑)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최상의 명령 (the supreme command)입니다.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에게 다가가서 그의 편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사랑 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와 분명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특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미 현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2022년 4월 3일 설교, 절대(absolute)가 바뀝니다)

세계를 돌며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노병의 모습과 사연을 기록해 그들에게 주는 사진작가 라미 현은 사진 값이 얼마냐고 묻는 참전용사에게 작가는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전쟁때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자유를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싸워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2천년 전에 죄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렇게



선물 받은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시인 바이런 George Gordon Byron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2022년 11월 20일 설교, 얼굴 붉힌 돌 향아리 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논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이 시간 내내 열심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답안지에 가득 채워가는 동안 젊은 시절의 시인 바이런은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생각만 하다가 한 줄 적은 함축적이고도 우아한 대답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무의미하고 맹목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 오셔서 포도주 같이 풍성하게 채워진 인생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베델뉴스팀



QTin 간증

주님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강정희 집사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슥 8:14-17, 19b)

하나님은 오직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진리인 말

씀을 통하여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나의 좁은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저의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며 사랑스러운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크지도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 당시 왜 굳은 마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수십번 반복해 읽으며 하나님을 격노케 한 나의 어리석음을 다 내어 드리고 낮아져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찬양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예수님의 시선이길 원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을 양식 삼아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랑을 나누길 기도 합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삼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육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한국학교 여름캠프

2023년 뜨거운 여름 베델 한국학교 여름 캠프의 현장으로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4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큐티로 시작하여 레벨에 따른 한국어 수업(한글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과 한국 역사, 인물, 음식, 동화 읽기, 연극, 노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소풍과 견학 등의 활동을 하며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맛있는 점심도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글을 가르치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격조건: 세례교인, 4년제 대학 졸업, 세금 보고 가능하신 분)

- ▶ 등록 기간: 4월 1일(토)~4월 30(주일)
- ▶ 등록비: \$590(4월 30일 이후 \$30 추가), child care 오전, 오후 각 \$80
- ▶ 대상: Kindergarden~12학년 (선착순 마감)
- ▶ 일정: 7월 10일~8월 4일(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
- ▶ 등록처: 베델학교 홈페이지 school.bkc.org
- ▶ 문의: 윤미나 집사(310)913-336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5월) 4/30:	①부-조광종	②부-주용중	③부-장재혁	④부-김진형
5/7:	①부-김병찬	②부-강현석	③부-김언조	④부-서윤지
5/14:	①부-여홍평	②부-김세진	③부-김수열	④부-윤제니퍼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4,5월) | 4/29: 김도형 5/6: 고스티브 5/13: 김건중 5/20: 김기주

강단꽃(4,5월) | 4/23: 김동심, 선상균, 조미리 4/30: 노성애, 이은지 5/7: 곽연자, 김성희, 김인규, 황은아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일(비호/산부인과), 간호사-황선영 다음주 | 의사-최진선(내분비내과), 간호사-김 명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배안),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이충경 목사의 '믿음과 의심 사이' 시리즈의 말씀으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베델 기도학교 4월 연합기도회 기도학교 이후, 15주간 매일 기도굴리기를 하던 9개의 그룹기도팀들이 연합기도회를 갖습니다. 베델 기도학교 훈련생 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도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4월 29일(토)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간단한 간식 제공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라구나우즈 지역 연합모임 라구나우즈 지역의 신앙의 연합과 일치력을 위한 4월 연합 셀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상: 라구나우즈 지역의 모든 성도(셀모임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베델성도) 일시: 4월 25일(화) 오후 12시-오후 2시 30분 *점심 식사 제공 장소: Laguna Woods Clubhouse 7

◆ 튀르키예 지진 현장 방문 구제사역 팀 모집 지난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이재민의 숫자가 150만 명, 간접적 영향을 받은 피해자는 1,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긴급구호팀이 철수한 이후 생존자들의 생필품 공급, 임시 처소, 질병 관리, 영적/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간: 1차 5월 22일(월)-5월 31일(수), 2차 8월 7일(월)-8월 16일(수) 3차 9월 11일(월)-9월 20일(수) 참가비: 개인당 하루 \$50-70(국제/국내 항공비, 여행비자, 여행자 보험 제외) 지역과 사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한 차당 18명으로 제한(현지가 열악한 형편이기에 자매 참석 숫자는 30% 이하로 제한) 주최: SWM 실크웨이브/프로젝트 명칭 CES 등록 안내: 본당 앞 코트야드, 베델교회 홈페이지 bkc.org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단기선교팀 모집 ① 니카라과: 안경, 사진, 의료, 전도, 아이들 사역 등 다양한 사역 일정/문의: 6월 5일(월)-10일(토), 정광목 장로 (949)232-3963 ② 우간다: 건물 페인팅, 어린이 VBS, 의료, 사진, 장애인 섬김 등 다양한 사역에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정/문의: 6월 12일(월)-21일(수), 김중곤 집사 (714)450-0015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 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교회학교 VBS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2023 VBS를 위한 교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VBS 진행을 위하여 중고등부 TA를 포함하여 어른 교사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실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사지원 링크는 각부서 전도사에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금), [K-5] 6월 21일(수)-24일(토)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영아부 교사 및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2부, 3부 교사 & TA),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소망부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베델한국학교 여름 캠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한글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를 배우고, 한국의 음식, 노래, 놀이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7면 참고) 등록 기간: 4월 30일(주일)까지 대상: Kindergarten-12학년(선착순 마감) 일정: 7월 10일-8월 4일(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 양로병원팀 재능 기부자 모집 매일 격주로(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인근 지역 양로병원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어르신 분을 섬기는 양로병원팀에서 주신 달란트로 같이 할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문의: 찬양, 악기 연주, 공연 등, 이해원 집사 (714)788-3833

◆ BGC(영어권 교회) 필리핀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 베델의 영어권 교회, Bethel Grace Church에서 필리핀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서 명랑 스타일의 핫도그를 판매하오니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도해 주세요 멕시코 일일 단기선교가 4월 29일(토)에 있습니다. 안전과 은혜로운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위로해 주세요 - 故 최수남 권사님(최상인 장로의 모친, 김원미 권사의 시모)께서 4월 12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장명화 성도님(장원호 성도의 부친, 김태영 성도의 시부)께서 4월 20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황은도 사모님(김성현 집사의 모친, 조미영 집사의 시모)께서 4월 20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